

“우주의 뿌리, 어머니에게 바치는 헌사”

한승원 작가 장편 '달개비꽃 엄마' 펴내



“어머니는 우주적 존재이자 우주적 뿌리라고 생각해요. 달 리 말하면 모성성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것으로 생명을 잉태하고 확장하는 젖줄과도 같은 것이죠.”

장흥 출신 소설가 한승원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다양한 가치를 함의한다. 모친이라는 생물학적 존재를 넘어, 다양한 작품의 소재로, 인류의 근원 가치를 내포하는 신화적 이미지로 확대된다.

작가 한승원이 소설에 입문해 창작활동을 펼쳐온 지 50년이 흘렀다. 어쩌면 그에게 소설은 생명의 바다이자 우주적 근원인 '어머니'를 탐구하는 여정이었는지 모른다. 반백년의 세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는 소설이란 무엇이며 왜 쓰는가라는 화두를 붙잡은 채 숨 가쁘게 달려왔다. 그의 소설 인생의 토대에는 생명성과 전통성 나아가 신화적 세계라는 인류의 보편적 주제와 맞닿아 있다.

한승원 작가하면 지난 5월 영국에서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의 아버지로 조명을 받았지만, (한강의 부친이기 전에) 국내에서는 문단의 거장으로 존경 받는 어른이다. 한승원 작가가 이번에 펴낸 신작 장편 '달개비꽃 엄마'(문학동네)는 그의 50년 작가 인생을 갈무리하는 역사작이다. 그는 1966년 신아일보와 1968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뒤 '아재아재 바라아재' 등 주옥 같은 다수의 작품을 펴내 주목을 받았다.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대한민국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남도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해왔다.

최근 기자회견의 전화 통화에서 한 작가는 “소설은 어머니의 이야기로 일종의 어머니에게 바치는 헌사”라며 “오늘의 내(우리가) 있기까지 우리 어머니 세대의 이야기를 형상화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은 한 작가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몇 해 전 백 세를 앞두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절친 생명력과 무한한 사랑에 대한 '탐구의 기록'이라는 데서 그



십일남매 키워낸 억척스런 '점용'

무한한 사랑에 대한 탐구의 기록

진보적이고 리더십 강했던 여인

소설가의 삶 이끈 동아줄이었죠

렇다. 소설은 십일 남매를 온전히 키워내는 일에 헌신했던, 그럼에도 시대의 저항에 맞쳐 버거웠던 어머니의 삶을 생명력 있는 필자로 그려낸다.

“어머니 이야기를 소설로 쓰기로 생각한 것은 오래 전부터였습니다. 저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유별난 구석이 있었는데, 확장시절에는 토요일이면 80리를 걸어서 집에 다녀올 만큼 어머니 콤플렉스가 있었지요.”

작가 자신이 동명의 등장인물로 형상화한 작품은 어머니에 대한 '깊이 읽기'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작가 자신의 삶과 문학을 반추하는 자전적 성격을 지닌다.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작품 속 등장인물 이름도 작가와 어머니, 가족들의 실제 이름을 그대로 썼다.

주인공인 섬 처녀 '점용'은 무슨 일이든 꼭 부러지게 해내는 다부진 성격의 인물이다. 당시 여성들은 교육받을 기회가 드물었지만, 학교에 다니며 학교를 홍보하는 일을 맡을 정도로 리더십이 뛰어났다. 후일 자신의 담임이었던 한승기와 결혼해 십 일 남매를 낳는다. 그 자식들 가운데 둘째인 '승원'이 집안의 가동 역할을 해낸다. “어머니 점용은 당시에는 대단히 진보적인 사고를 견지했다”고 말하는 한 작가는 “어머니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제사만 지내다 망했다”면서 “여러 조상들의 제사를 한 날로 잡아 합동으로 지내게 할 정도로 열린 사고를 견지했다”고 덧붙였다.

그 같은 어머니 점용은 둘째 아들 '승원'에게는 삶의 동아줄과도 같은 존재였다. 지난한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작가의 길을 꿋꿋이 걸을 수 있었던 밑바탕이었다. 문학에 뜻을 두고 서울로 공부하러 가는 문제에 있어 '점용'은 전적으로 '승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응원을 해줬다.

한 작가는 “나만을 바라보는 처자식과 동생들에게 보일 수 없었던 고단한 울음도 어머니의 품에서만큼은 마음놓고 털어놓을 수 있었다”며 “그 가운데서도 어머니는 하늘의 저울 같은 균형 감각으로 다른 자식들의 삶을 보살피고 사랑을 나눠줬다”고 강조했다.

소설은 이렇게 자전적인 형식과 액자형식이 교차되고 있어 현실속의 한승원을 다채롭게 볼 수 있는 이야기 거리를 던져준다.

한 작가는 딸 한강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자녀들이 어린 시절 방학 때면 할머니 집에 머물며 농촌체험과 바다체험을 하며 감수성을 키웠다. 오늘의 한강을 만든 건 유년의 감수성과 체험”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강의 작품 세계는 보편적인 동시에 신화적이며 인간의 근원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데 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일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컨벤션홀에서는 '2016 제6회 한국문학특구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에서는 '한승원 작가 문학 50년 그의 세계를 재조명하다'는 주제로 한 작가의 삶과 문학세계를 조명하는 뜻 깊은 행사가 열려 문단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프로젝트 앙상블 런’ 초청 목요상설무대

광주문화재단, 13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문화재단은 13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목요상설무대로 ‘프로젝트 앙상블 런’을 초청해 ‘목련(目連)’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는 남도 지방 전통 민요인 ‘새타령’을 땀과 선율에 접목해 흥겨운 무대를 선사한다. 또 세월호 희생자를 위로하고 죽은 낚의 삶을 풀어내는 ‘살풀이’를 피아노 반주와 아쟁으로 들려준다. 이어 장례식 때 부르는 ‘상여’ 소리를 현대식 음악으로 재해석한 곡을 선보이고, 경기아리랑과 진도아리랑을 재즈 느낌으로 편곡한 ‘런 아리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앙상블 런’은 지난 2012년 아쟁, 대금, 피아노, 퍼커션, 타악, 소리꾼 등이 모여 전통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공연하고 있는 악단이다.

이번 공연에는 유세운 대표와 피아노 홍은혜, 대금·소금 임정철, 소리 이미소, 퍼커션 박상민, 타악 임지영, 소리 김원근, 멜로디언 정성환씨가 참여한다. 선착순 100명 무료공연.

한편 목요상설무대 다음 공연은 오는 20일 ‘베이스스 플루트 앙상블’을 초청해 ‘플루트&크로스오버’ 무대를 선보인다. 문의 062-670-794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016 광주미술상 수상 후보자 공모

11월 18일까지 접수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이사장 배동환)가 ‘제22회 광주미술상 수상’(상금 1000만원) 후보자를 공모한다.

응모자격은 광주·전남 출신이거나 5년 이상 거주자로서 만 28세 이상 45세 미만 작가 또는 단체다.

제출서류는 응모원서 1부(웹하드 다운 www.webhard.co.kr, 아이디 gd1403-패스워드 1403), 포트폴리오(A4크기 최근3년 이내 작품사진 등) 1권, 영상CD(본선 발표 내용-10분 이내) 1매, 주민등록초본 1통이다. 오는 11월18일까지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 사무국으로 우편 및 방문접수하면 된다.

오는 11월29일 1차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자 3명을 선발하고 같은날 광주 YMCA 무진관에서 프리젠테이션 후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의 무기명 투표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한편 광주미술상은 지난 1995년 지역 원로·중견 미술인들이 후배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 매년 운영하고 있다. 문의 010-2608-273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시극... 7080 포크댄스·통기타...
문태준 시와 기특한 만남

시문화연대 내일 가톨릭대서 강좌

서정시 계보를 잇고 있는 문태준 시인의 작품을 모태로 제작된 시극과 시인의 시상을 엿볼 수 있는 무대가 광주에서 펼쳐진다.

시문화연대는 12일(오후 6시 30분) 쌍촌동 가톨릭

대학 대건문화관에서 ‘최고의 서정시인 문태준 시극의 아주 기특한 만남’을 주제로 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서는 시문화연대 회원들이 문태준 시인의 시 중 ‘가재미’ 연작 3편을 시극으로 구성해 무대에 올리고 ‘맨발 백년’ 등 문 시인의 대표시를 낭송한다.

이와 함께 시문화연대 회원들이 준비한 7080음악과 함께하는 추억의 포크댄스를 비롯 여고 시절을 돌아보는 ‘여고졸업반’ 무용극과 통기타 가수 양향태의 공연이 펼쳐진다.

시문화연대 김현서 대표는 “시문화연대 출범과 함께 서정시인인 문태준 시인을 모시고 가을밤을 문학으로 물들이는 행사를 기획했다”며 “가슴 따뜻한 문 시인과 만남이 광주 문학인들의 가슴을 적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태준 시인은 94년 문예중앙을 통해 등단해 동서문학상, 유심작품상, 미당문학상, 소설시문학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수려거리는 뒤란’, ‘맨발’ 등을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24시간 OPEN!!

참숯가마

맛의향연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금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송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